

치사

-제7회 기술사의 날-



존경하는 한국기술사회 이정만 회장님, 자리를 함께하신 기술사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戊子년 새해와 「제7회 기술사의 날」을 맞이하여 과학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기술사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해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계 최고층 빌딩인 버즈 두바이(Burj Dubai) 수주 등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신 강선종 기술사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기술사의 능력개발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기술사회 관계자 분들께도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술사 여러분!

지난 30여 년간 기술사 여러분이 산업현장에서 흘린 땀과 노력은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술사는 1964년 67명 배출을 시작으로 본격화 되었으며, 현재 3만 3천여 명에 이르는 기술사들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초고속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 되고 있는 오늘날 국가경쟁력은 기술력에 의해 좌우되며 이는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한 최고 국가기술자격자인 기술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술사 육성 제도는 근거법의 폐지와 주무부처의 변경 등 몇 번의 굴곡을 거치며 그리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2005년 기술사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학·경력기술자 제도를 개선하였고,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확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기술사의 배출에서 육성, 활용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부가 체계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기술사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올해 1월에는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08~1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술사 여러분!

정부에서는 앞으로 기술사제도가 전문자격으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술사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여 응시자격과 시험방법 등 검정제도를 개선하고, 종목을 국제수준에 맞게 조정하며, 새로운 업무영역을 발굴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사 여러분께서도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기술역량 축적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여러분의 열정이 결합할 때 우리나라는 21세기 선진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기술사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행사를 준비하신 한국기술사회 임직원과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2월 22일

과학기술부 차관 정 윤